축구골대 없는 축구시합

(욥기 15:1~35)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축구골대 없는 축구시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축구골대 없는 축구시합'

우리나라에서 U-20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는데 어제 8강전에서 포르투갈에게 1:3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 골을 넣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0:3으로 졌다면 답답한 마음에 포르투갈은 골대 없이 게임했냐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전제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왜 내 인생에는 골인이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나 생각이 듭니다. 골 하나 넣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골이 풍성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냐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기계발서를 뒤져보기도 하고, 목사님들은 여기저기 목회성공세미나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나 호날두처럼 마음에 흡족할 만큼의 골게터는 될 수가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이유는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골이 들어갔을 때와 같은 폭발적인 기쁨이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도 애초에 인생이라는 축구장에 골을 넣을 골대가 없었습니다. 골대가 없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드리블을 잘하면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드리블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골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골을 넣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혹은 한 분야에서 일류가 된 사람들을 봅니다. 일류화가, 일류성악가, 최고의 의사, 스티브잡스, 빌게이츠 등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골을 넣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골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골대 없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고 골 제로의 삶을 살았지만, 사

탄에게 속아서 드리블을 잘 하는 것을 골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드리블은 아무리 잘해도 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타고난 골게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로 합니다.

이제까지의 본문에서 욥은 세 친구들과 첫 번째 변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장자로 추측되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면 계속되는 친구들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드디어 경건하지 못한 자로 여겨서 한층 더 강도 높은 책망을 합니다. 7~16절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의 책망조차 무시하는 욥을 교만한 자로 비난합니다. 17~35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교만한 자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찌되는지를 자기 고향에서 전래되어 내려오는 지혜의 이야기를 빌어서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래된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외부적 침략으로 망할 이유가 없는 안정된 삶에서 한 사람이 죄악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힘이 없더라도 내부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말은 너무나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와 욥을 비교해봅니다.
같은 점은 가족 재산 명성 친구 등과 같이 마음 안에 밀접하게 여겨지는 대상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점은 욥은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세상 바깥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음에 소중하게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원과 계획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그에 대한 상벌을 주신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쓰인 책이 바로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목자가 이끄는 삶’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꼴을 먹기 위해 가야 될 지점을 이야기해주며 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가르쳐 줬으니 스스로 기억하고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항상 앞에서 양을 이끌어 가는 존재입니다.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목적지 의식은 목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양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의 목적은 오직 눈앞에 있는 목자이어야만 합니다. 결코 내가 목자로부터 부여 받은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 법도에 맞춰서 잘 이끌어 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며, 에덴의 타락 현장을 재현하는 일일 뿐입니다.
욥과 엘리바스에게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사고가 현세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 세상 안에서 잘 살기 위한 조건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세상에 대해 절망함을 통해 세상 바깥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욥은 부활에 대한 생각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탁월한 영적 천재성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절망에 몰리다보니 욥의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향하게 된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엘리바스의 마음의 시선은 완전히 현세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골대가 없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진정한 골대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이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의 목사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일관된 주제로 설교를 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소망은 골대에 골을 넣는 것입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골대를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골대는 눈으로 보이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골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아계신 하나님 우편이 바로 우리의 골대입니다. 축구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골대를 생각해야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골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축구시합이 벌어지는 삶의 경기장은 하늘을 골대로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세상을 같이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야 하늘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골대인데 이 하늘을 제거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살아서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마음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욥이 세상에서 절망으로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면서 몰림을 당했을 때에 세상 바깥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바깥에 있는 골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바깥에 골대가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골을 넣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바깥에 있는 골대를 보고 내 마음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욥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골을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골을 넣고, 하나님은 세상 골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목적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와 생각과 관계를 통해서 골을 넣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골을 넣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세상 골을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윈윈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앞부분에서 욥에게 경건이 없다고 하였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야말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특별한 경기가 벌어집니다. 나만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가 아닌 서로에게 많은 골을 넣는 경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골을 많이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올려놓는 골을 계속 넣음으로서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골과 세상 골이 계속해서 뻥뻥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골대가 세상 바깥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우리를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 같은 골게터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마치 축구경기에서 우리 팀의 진영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 골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는 하프라인을 넘어서 우리진영을 떠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골대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떠나가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진영과 하늘진영을 가르는 경계의 하프라인입니다.

골을 넣기 위해 이 세상진영에 대해서 죽고 하늘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을 넣기 위한 골게터들은 수비를 할 때에도 상대방 진영에서 공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늘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십

자가 생활화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늘에 골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님에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다시 살리심은 이제는 골대가 하늘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승천하신 주님을 꼭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골을 넣는 것입니다. 하늘에 골을 넣고 기뻐하다보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떠난 삶의 현장에서 골을 넣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골을 넣으실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칠십 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이들이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었음으로 인해 기뻐하자, 주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골을 넣으실 때에 세상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기쁨을 가진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골이 계속해서 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다시 세상이 좋다고 내려와서 그것으로 기쁨 삼는다면 자살골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엘리바스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처럼 자꾸만 이 세상 안에 우리의 골대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골대는 이 세상 바깥에 있습니다. 이제는 골대 없는 경기장에서의 축구시합을 끝내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골대 있는 경기장에서의 골을 넣는 골게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한시도 끊어지지 않는 하늘 골게터들이 되게 해주셔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골게터가 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